

CGNTV 기독 OTT '풍당' 출시 1주년

스마트TV 및 웹 버전 오픈, 스마트TV와 PC에서도 '풍당'
풍당 어워즈, <더 워크> 시청 인증, 인스타그램 챌린지 등 이벤트



CGNTV가 국내 최초로 출시한 기독 OTT '풍당'이 1주년을 맞이했다. CGNTV 직원이 성도들에게 기독 OTT '풍당' 스마트TV 앱을 소개하고 있다.

CGNTV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기독 OTT '풍당'이 출시 1주년을 맞이했다. 기독 OTT '풍당'은 출시 1년 만에 접근성, 콘텐츠, 양육 기능을 대폭 확장했다. 기독 OTT '풍당' 스마트TV 및 웹 버전도 출시했다. 이제는 스마트TV와 PC에서도 기독 OTT '풍당'을 즐길 수 있다.

기독 OTT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도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 출시 1주년에 맞춰 영화 <더 워크>도 공개했다. <더 워크>는 대표곡 'El Shaddai'로 잘 알려진 '마이클 카드'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다. 스승과 제자의 아

름다운 동행을 그리고 있다.

CGNTV는 성경암송퀴즈쇼 <바이블킹>, <김형익 목사의 씨네클래스> 등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다양한 분야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기독 OTT '풍당'의 클래스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230여 개 네트워크 교회가 기독 OTT '풍당'을 활용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클래스 기능을 강화하면 양방향 소통 등이 가능해져 더 많은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기독 OTT '풍당'을 활용할 수 있다.

기독 OTT 플랫폼 '풍당' 출시 1주년 기념

이벤트도 한다. 시청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콘텐츠를 추천하는 '풍당 어워즈', 풍당 오리지널 영화 <더 워크> 시청 인증 이벤트, '인스타그램 챌린지' 등이 열린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기독 OTT '풍당' 앱과 인스타그램, CGNTV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CGNTV 대표 이용경 장로는 "익숙함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을 만날 수 있다"면서 "17년 동안 한결같이 CGNTV에 보내준 관심과 사랑, 후원을 아끼지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당신의 헌혈이 꼭 필요합니다!"

생명나눔의 기적 4월 17일까지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혈액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2월 9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금 바로 헌혈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2월 18일 기준 혈액관리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혈액보유량은 1만5,899유닛(Unit)으로 32일분(O형 26일분, A형 3.1일분, B형 3.8일분, AB형 3.1일분)이다. 적정 혈액보유량 2만6,000유닛(5일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10,101명의 헌혈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피(血)' 문화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이하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2가 4월 17일까지 이어진다. 온누리교회를 포함한 16개 교회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2월 18일 기준으로 성도 1,245명이 헌혈했다. 가까운 한미음혈액원 헌혈카페 또는 헌혈의 집에서 헌혈하고 헌혈기념품 대신 기부권을 구매하면 소아암 어린이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생명나눔의 기적 '참여 인증 사진, 한 줄 소감, 이름, 연락처, 주소'를 카카오톡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이나 문자 메시지(010-4048-3091)로 보내면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 온누리신문에 게재된다.

오는 2월 27일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날' 행사는 수원, 부천, 인천온누리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된다. 헌혈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수원은 목회지원실에서 신청을 받는다. 교회 로비에 마련된 헌혈 대기 장소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관련기사 7면>.

문의: 02-570-7523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3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온누리교회가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아주 특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이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주제로 3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창조질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작은 실천을 한다. 성도들이 실천하는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관련 내용은 주일예배와 모바일로 배포

되는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안내서를 참고하면 된다. 빛, 공기, 물, 땅, 계절, 생명, 인간 등 7가지 주제를 묵상하고 그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과제를 골라 실천하면 된다. <관련기사 8, 13면>.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는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을 통해 창조질서 회복을 이루어 가는 사명자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 김영선 기자

온라인 순장영성수련회

3월 1일 오전 10시 중

온누리교회 순장들을 격려하고 섬김과 헌신을 독려하는 순장영성수련회가 막 오른다. 3월 1일(화) 오전 10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리더십(장로, 총무, 다락방장, 순장 등) 2천여 명이다. 교회에서 각 공동체 총무에게 순장영성수련회 접속 링크를 전달할 예정이다.

1부 더 블레스 특순, 홍성호 장로(당회 서기) 특강,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소개, 이재훈 담임목사 메시지, 2부 신임 다락방장 및 순장 임명, 기도회, 선서 '나는 온누리교회 순장입니다'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당 회

일시: 2022년 2월 26일(토) 오전 6시
장소: 양재 기쁨홀
안건: 평남노회 청원, 2021년 결산보고

제직회

일시: 2022년 2월 27일(주일) 2부예배 후
장소: 양재 사랑홀
안건: 평남노회 청원, 2021년 결산보고

공동의회

일시: 2022년 2월 27일(주일) 3부예배 후
장소: 양재 사랑홀
안건: 2021년 결산보고

신년특집 세상의 소금과 빛 온누리

⑦ CGNTV 대표 이용경 장로와 함께



온누리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을 표어로 내걸고 2022년을 힘차게 출발했다. 본지에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기관, 사역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 일곱 번째 주인공은 CGNTV다. CGNTV는 지난해 국내 최초 기독교 OTT ‘풍당’을 론칭하고 또 하나의 미디어 선교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CGNTV 대표 이용경 장로를 만나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음은 CGNTV 대표 이용경 장로와의 일문일답.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생활도, 예배도 어렵습니다. 올해는 이 모든 어려움을 뒤로 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과정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정금같이 빛나는 성도님들로 성장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해 CGNTV가 2년여 준비 끝에 국내 최초 기독교 OTT ‘풍당’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그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니다. 시청자들과 후원자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OTT ‘풍당’은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지만, CGNTV는 변함없이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도 선교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CGNTV 대표로서 기독교 OTT ‘풍당’ 런칭은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기독교 OTT ‘풍당’은 TV와는 다른 개념의 서비스이기에 기획하고 런칭을 준비하는 처음부터 두려움과 기대로 시작했습니다. 콘텐츠를 시청자가 골라서, 원하는 시간에 소비하는 요즘의 콘텐츠 소비행태에 적응하기 위해 콘텐츠 기획 방식부터 배포 형태까지 기존 방송과는 달랐습니다. 제2의 창업에 가까웠지요. 기존의 방송을 운영하면서 진행해야 하였기에 인력과 예산 자원이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재훈 담임목사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셨고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한 시청자와 후원자들의 격려와 지원이 큰 힘이 되

었습니다.

미디어 형태는 변하지만, 미디어로 한 영혼에게 다가간다는 CGNTV의 사명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CGNTV의 사역 형태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사명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널리 순수 복음 콘텐츠가 전해지도록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와 도전에 CGNTV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시청자들과 후원자들이 공감하고 기도와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덕분에 CGNTV가 성공적으로 기독교 OTT ‘풍당’을 출시할 수 있었고, 새로운 복음 콘텐츠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새해 CGNTV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 목표가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CGNTV의 기본적인 사명은 선교사들을 돕는 것입니다. 우선 CGNTV의 강점과 특성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CGNTV는 기독교 OTT ‘풍당’, 다큐멘터리 제작, 해외 지사를 포함한 글로벌네트워크, 광고 없는 방송이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출시 1주년을 맞은 기독교 OTT ‘풍당’이 벌써 사용자들의 1년 동안의 경험을 종합해서 개정판을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만 만날 수 있었던 기독교 OTT ‘풍당’을 스마트TV와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성과 현금 기능을 추가해서 목회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지난해 CGNTV 프랑스 지사가 활동을 시작했고, 일본과 미국을 포함한 해외 6개 지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CGNTV의 꿈은 해외 지사들이 각 언어권의 본사가 되어서 크리스천 미디어를 확대 및 생산하는 것입니다. 해외 지사의 경험이 외국

어 버전 기독교 OTT ‘풍당’을 만드는데 엄청난 자원이 될 것입니다.

많은 시청자가 CGNTV하면 ‘다큐멘터리’를 떠올립니다. 오랫동안 사랑받는 다큐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같은 작품의 뒤를 이을 다큐멘터리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것입니다. 양질의 콘텐츠를 시청자와 후원자들에게 나누면서 기독교 미디어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CGNTV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2천 년 전 예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CGNTV는 변함없는 진리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만 매체와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해 왔고 변해야 합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도를 맞추는 것이 CGNTV가 당면한 도전입니다. CGNTV는 지난 17년 동안 늘 도전의 역사를 썼습니다. 위성, 인터넷, 유튜브 채널에 이어 기독교 OTT ‘풍당’에 이르기까지 CGNTV는 시대의 요구를 따라 변화하면서 변하지 않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늘 도전해왔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도 복음 메시지를 듣는 시대입니다. 그 일의 시작을 CGNTV가 했습니다. 아무도 스마트폰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기대를 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스마트폰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CGNTV는 주저하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시대의 환경에 맞춰 변화하면서 절대 변하지 않는 순수 복음 콘텐츠를 세상에 송출했습니다. 그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서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 채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가고, 가능성을 찾아 모두에게 길을 터 주는 일을 CGNTV가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미디어 환경에서 CGNTV만 할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콘텐츠가 곧 경쟁력입니다. 콘텐츠 제작자로서 CGNTV는 어떤 새로운 콘텐츠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신앙적 키워드는 ‘말씀’과 ‘차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혼란은 말씀을 더욱 붙들게 합니다. 한국 교회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성경암송퀴즈쇼 〈바이블킹〉을 올해 봄 선보입니다. 현재 예선이 진행 중인데 1천 명이 넘는 참가자가 참여했습니다. 성경암송퀴즈쇼 〈바이블킹〉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성경암송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큰 사랑을 받았던 유튜브 콘텐츠 〈갯툰〉역시 더 다양한 구성으로 채워집니다. 누구나 즐겨보는 콘텐츠로 성장한 〈갯툰〉은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교회를 잘 모르는 이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특유의 재치까지 담았습니다. 전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갯툰〉을 많이 시청하고 홍보해주신다면 더 큰 역할을 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조혜련 집사의 성경 강의로 많은 관심을 받은 〈오십소〉가 올봄 시즌3로 돌아옵니다. 접근성을 강화해서 더 많은 성도에게 다가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 외에도 복음 콘텐츠의 진입장벽을 낮출 단편영화 〈더 워크〉와 해설판 〈씨네클래스〉 등 다양한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CGNTV 콘텐츠와 함께 더욱 깊어지는 신앙의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미디어 선교사로 날마다 성장하는 CGNTV를 위해서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난 17년 동안 보내주신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의 사랑 덕분에 CGNTV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CGNTV를 통해서 힘을 얻고,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는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와 선교사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디어 선교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미디어 선교 현장이 끝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CGNTV가 익숙함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CGNTV의 도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 후원이 미디어 선교를 멈춤없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CGN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미디어 선교사입니다. 올해도 CGNTV와 동역해 주십시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은 날카로운 칼끝에 피를 흡입시킨 다음 그것을 얼립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날이 위를 향하도록 얼어붙은 땅속에 파묻어 놓습니다. 피 냄새를 맡은 늑대들이 와서 칼날을 핥기 시작합니다. 늑대의 혀바닥이 얼어서 무감각해지고 어느새 날카로운 칼끝을 핥게 됩니다. 늑대는 자신의 피까지 흘리게 되는데 그 피에 끌려서 더 빠른 속도로 칼날을 핥다가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 도축장에서 소를 잘 죽이는 법에 대한 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 처하게 되면 소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요동할 수 있어서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해서 만족스럽고 편안한 환경을 만든다고 합니다. 소들을 트럭에서 내릴 때 소들이 지나가는 통로에 소들이 비벼졌던 축감과 비슷한 장치를 마련하고 집에 가듯한 느낌을 경험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소들이 자신의 발굽이 땅에 닿지 않는 것을 느끼지도 못한 채 도살된다고 합니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냄비 속에 개구리를 넣고 0.2도 이하로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는 죽음에 이르는 온도에 이를 때까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물의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가 뛰쳐나가지만,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그곳을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인간이 다른 생물을 어떻게 속이고, 목적을 이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이 유혹 때문에 어떻게 죽음에 이르는지도 보여줍니다. 죽음에 이르는 유혹은 돌발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 매우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속이고 속는 과정이 있습니다. 늑대와 소와 개구리가 인간의 속임수에 넘어가듯이 인간도 속고, 서서히 유혹에 빠져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십시오”라고 호소합니다. 유혹에는 반드시 속임수가 있습니다. 유혹의 위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소해 보이고, 무시해도 좋을 만한 유혹으로 시작해서 심각한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유혹에 무너진 사람들을 보면 평범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트린 이후 유혹이 왔다면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다윗을 대적할 수 없는 것 같

은 편안한 환경에서 작은 유혹이 시작됐습니다. 견고한 성이라도 배신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머지않아 무너지는 것처럼, 스스로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단 하나의 배신의 씨앗만 있으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가면 극단적으로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사탄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이후 하나님이 책임을 추궁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먹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전가했습니다. 여자는 어땠습니까? “뱀이 저를 꾀어서 제가 먹었습니다”(창 3:13)라며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험에 빠질 때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으로 시험하지 않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13절).

이때 ‘시험’은 12절까지 나타난 연단으로서의 시험 ‘트라이얼(trial)’ 혹은 ‘테스트(test)’가 아닙니다. ‘템프테이션(temptation)’, 유혹으로써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려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유혹의 원천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이용하거나 악에 의하여 유혹당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유혹의 원천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탄입니다.

죄와 유혹의 단계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14-15절).

여기서 ‘각 사람’은 누구에게나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욕심’이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갈망을 뜻합니다. 이 말씀 속에 죄와 유혹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이 나타납니다.

첫째, 미혹의 단계입니다. ‘미혹’이라는 단어는 낚시바늘에 있는 미끼를 물고기가 물은 상태를 뜻하는 단어로 설명되는데, 내면의 욕심이 외부 유혹을 만나는 것이 미혹된 상태입니다. 내면에 있는 갈망 자체는 결코 죄가 아

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갈망하도록 지으셨고, 갈망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배고픔의 갈망, 성적인 갈망, 세상을 다스리는 갈망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이도록 만드셨고, 반성하도록 만드셨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유혹 거리와 미혹 거리를 우리가 물게 될 때 미혹의 상태에 빠져듭니다.

둘째, 잉태의 단계입니다. 욕심이 유혹과 결합해서 죄를 낳는 것입니다. 미혹의 단계에서 잉태 단계로, 잉태의 단계에서 성장의 단계를 거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 미혹의 단계, 잉태의 단계, 죄가 자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죄가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우발적이거나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속아서 참여하기도 하고, 알고도 참여합니다. 아는 것에는 분명히 속임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와 유혹에는 절대로 진실이 없습니다. 반드시 거짓이 있습니다. 진실인 줄 알았는데 거짓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속습니다. 그래야만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속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을 이용해서 미혹하고, 죄를 낳게 하고, 사망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갑니다. 갈망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갈망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향하지 않고 사탄이 주는 미혹 거리로 향하게 되면 미혹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와 유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갈망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를 제어하는 것도 욕구가 필요합니다. 방향이 잘못된 것이지만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욕구가 무엇을 붙잡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는지 아니면 사탄이 준 미끼를 붙잡는지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선택이 있기에 죄와 유혹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정체성 형성의 중요성

하나님은 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유혹 거리를 없애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성장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스스로 실패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으면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패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이고, 반역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의 포로가 되었지만,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는 힘과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올바른 정체성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이들이 유혹 거리에 속아 미혹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정체성이 올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최초의 타락에서 왜 여인이 뱀에게 미혹됐습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정체성의 가장 큰 혼란을 경험한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가 동생 야곱에게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기고, 아버지의 축복을 뺏기고, 사냥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 되었을까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공급자이고, 보호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에게 “나를 위하여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오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것 때문에 에서의 정체성의 확립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은 시험은 유혹입니다. 사단으로부터 받은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그 직전에 예수님이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 시험의 본질은 아버지와와의 관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보호자가 되고, 스스로 돌보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존재가 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의지해서 세 번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옛사람이 처리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으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14면에 계속)

2022 목회사관학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겠습니다”

온누리교회 목회자 400여 명 오프라인 및 온라인 참석
이재훈, 유기성, 방선기, 이인호 목사, 이정선 사모 강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겠습니다!”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이 2022년 목회사관학교 ‘소금과 빛으로 사는 목회자’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지난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마임비전빌리지와 온라인(Zoom, 유튜브)으로 진행된 2022년 목회사관학교 ‘소금과 빛으로 사는 목회자’에는 이재훈 담임목사를 비롯해서 온누리교회 전임, 파트 목회자, 해외비전교회, 협력교회 목회자 등 400여 명이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목회사관학교 ‘소금과 빛으로 사는 목회자’에서는 ‘복음과 목회 리더십’, ‘복음과 영성’, ‘복음과 세상, 일터’, ‘복음과 설교’, ‘복음과 성령’, ‘복음과 선교’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졌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복음과 목회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재훈 목사는 “목회자들은 문화를 변별하면서 회중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노마드의 영성, 어린이와 같은 영성, 모험적 영성을 지닌 목회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는 ‘복음과 영성’을 주제로 강의했다. 유 목사는 “목회자가 붙잡아야 할 것은 교세가 커지고 사역이 잘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나는 죽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동행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방선기 목사(직장연

구사역소)는 ‘복음과 세상, 일터’를 주제로 강의했다. 방 목사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 줄 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면서 “세상 문화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흠어진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는 ‘복음과 설교’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 목사는 “복음적 변화를 위해서는 복음적 설교가 필요하다”면서 “강해설교, 복음적 설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권면했다. 이정선 사모는 ‘복음과 성령’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사모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한다”면서 “성령의 인도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좇아 사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는 “세상을 대적하는 동시에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크리스천들의 자세에 대한 메시지가 마음 깊이 남았다”고 고백했다. 신기섭 목사(서빙고공동체) “목회자의 방향과 삶이 목회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는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가짐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허원희 목사(남양주온누리교회)는 “젊은 교역자들과 나눔을 하면서 처음 목회자가 되었을 때의 뜨거운 열정과 신선함을 다시 일깨웠다”고 고백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이재훈 담임목사 메시지

복음과 목회 리더십

복음은 세상과 동떨어진 형태가 아닙니다. 문화와 함께 전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역사에는 언제나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있습니다. 문화의 그릇을 담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과 목회 리더십의 관계는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면서 시대적 적절성을 가진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목회자인 우리도 시대적 문화 속에 있고, 회중도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를 변별하면서 순수하게 복음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포스트모던 세계관을 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적응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문화에 대한 적절성(cultural relevance)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변혁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복음적 목회 리더십은 영원토록 변함 없는 진리를 붙잡고, 현대의 문화 속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영성입니다. 어느 시대건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인간 구원의 길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이 시대의 세계관과 문화를 뒤집고 이용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모던 시대 우리의 존재론적 본질은 나그네 된 거류민들(Resident Aliens)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가 주변부의 소수 거류민으로 존재하는 것은 위기지만, 언제나 교회가 이러한 위기와 마주할 때 진정한 교회다워졌습니다. 위기 속에서 본질을 되찾고, 진정성 있는 존재가 되며,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이고, 우리가 이 땅의 거주민이 아니라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포스트모던 시대 우리는 순례자적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 영성을 제안합니다.

첫째, 노마드 영성으로 부르심을 따르는 목회자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여행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여행하는 노마드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으로 부르셔도 가까이 노마드 영성으로 따라갈 수 있는 목회자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 영성을 가질 때 성도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갈 길이 먼 사람은 중간에 만나는 어떤 일이나 상황에 매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둘째, 어린이와 같은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목회자입니다.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마 18:1~4). 하나님은 어린이이다 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목회 리더십은 어린이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짜 어린이다운 목회 리더십은 어떤 시대, 어떤 사람들도 존경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리더입니다.

셋째, 모험적 영성으로 선교적 소명을 이루는 목회자입니다. 순례의 여정은 모험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명령에 충실할 때만 위험이 아닌 흥미진진한 믿음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온누리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선교적 모험과 도전을 견디려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온누리교회가 더 크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같은 사명을 수행하는 공동체야말로 강력한 교제를 형성합니다. 교회는 순례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지구 상에서 가장 모험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

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모든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적 목회 리더십은 영적 모험을 앞서 이끌고, 노마드 영성으로 순례자의 영성과 어린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회중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영성이 나타난 사람이 하용조 목사님입니다. CGNTV 시작할 때 많은 이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것이 모험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정말 어린 아이 같은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노마드 영성, 안주하지 않고 계속 순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용조 목사님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될 때 성도들이 잘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탔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 인지를 분별해서 쓰임 받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이재훈 담임목사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의 다짐

“소금과 빛으로 사는 목회자!”

2022년 목회사관학교에서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이 어떠한 시대에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겠다고 결단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의 다짐을 정리했다.

/ 편집자 주

겸손한 리더십 갖춘 목회자



김철희 목사
(일본어예배부)

“이번 목회사관학교에서 복음과 관련한 다양한 강의를 들으면서 새삼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선교에 대한 사명과 신념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과 성도들을 훈련하셨고, 이재훈 목사님이 그 뒤를 이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성도와 교회를 품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목회사관학교에서 어린이아이와 같은 겸손함과 순수함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을 양육할 때 화려한 이벤트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린이아이와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성도님들을 섬기겠습니다. 겸손한 리더십을 갖춘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와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격려하고 기도하는 목회자



정장철 목사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그리운 동료 목사님들을 직접 뵙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온라인으로 온 누리에 흠어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서로 다른 목회 환경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와 고민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 속에서 따뜻한 격려와 힘찬 응원,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어 주시는 잔잔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목회사관학교에서 저의 목회를 점검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소금과 빛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반성했습니다. 성숙하고 열매 맺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저부터 결단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도록 목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본질만 짚 찬 목회자



이명선 목사
(오사카 온누리교회)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많은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가 할 일을 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도도 하고, 새신자들도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과 겉질을 까듯 비본질적인 것은 벗겨내고, 본질만 짚 찬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설교할 때 복음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 깊이 묵상하고 설교하지 않았음을 반성했습니다. 복음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 더욱 복음적인 설교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외비전교회는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목회가 곧 선교입니다. 최종 목적은 복음이자 선교입니다. 그 목적을 더욱 명확하게 설정했습니다.”

본질에 충실하고, 그리스도와 친밀한 목회자



김수수 목사
(대학청년 본부장)

“이번 목회사관학교에서 복음 중심의 목회와 설교의 본질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주목하고, 예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나누는 게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뤄가는 목회자가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가 되는 해

답은 ‘오직 복음’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날마다 복음을 경험하고 깨닫고 있는지, 복음을 성도들이 분명히 알게 하는지 성찰했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먼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눈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에 충실한 목회자,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설교하고 들은 대로 사는 목회자



김종아 목사
(인천 온누리교회)

“목회사관학교에서 목회자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설교와 삶의 일치에 대한 메시지에 많은 찔림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설교한 대로 살아야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삶과 사역의 중간 지점에서 갈등하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설교한 대로 사는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도전이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혹은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이라도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은 설교한 대로, 설교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믿음과 영성이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겸손한 목회자



오민 목사
(서초B공동체)

“이번 목회사관학교에서 영혼의 엑스레이를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있던 영적인 나태함과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목회적 소명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전반적인 줄기를 세우고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목회자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으로서 영혼을 살피고 치유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재훈 목사님과 함께 더 성숙한 모습으로 목회할 때 온누리교회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복 받은 교회,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옛날의 영광만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맞게 그러나 변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노마드, 어린이, 모험적 영성의 목회자



이강현 목사
(양재A공동체)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영역에서 교회의 비전에 부합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담임목사님 개강예배 설교대로 복음에 초점을 맞춰 강의에 몰입하였습니다. 입소 전에 읽은 책 <나의 목회자 형제들에게>와도 연결된 강의 구성이라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안전을 유지한 상태로, 만나서 참여

하니 더 깊이 있는 소통과 교제가 가능하여 좋았습니다. 같은 조였던 박종길 목사님과 여러 목회자님과 나눔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귀한 시간을 마련해주신 담임목사님과 행사를 진행하느라 고생한 진행팀이 있었기에 선물 같은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목회사관학교에서 듣고 깨달은 대로 노마드 영성, 어린이 영성, 모험적 영성을 실천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어린이 같은 믿음 가진 목회자



박성원 전도사
(W청년부)

“올해부터 대학청년부 W청년부에서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면서 부담이 많았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기보다 이전에 쌓은 경험에 더 의존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목회사관학교 강의에서 목회자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 친밀하게 동행해 한다는 본질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사역들은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동행하며, 붙드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목회사관학교에서 온누리교회에 흐르는 선교의 영성을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재훈 담임목사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이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이 아이 같은 순수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겠습니다.”

교회 밖으로, 낮은 곳으로 가는 목회자



유성하 전도사
(SNS청년부)

“목회사관학교 첫날 이재훈 담임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두 가지가 와 닿았습니다. 첫째, ‘복음이라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착각이 많이 깨지고, 복음을 깊이 탐구해야겠다는 도전이 생겼습니다.

둘째,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동시에 미래 사역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역에 안주하지 말고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청년들이 사는 세상을 배우고 경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복음을 청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이번 목회사관학교가 교회와 공동체로 사역을 제한했던 시선과 생각을 교회 밖으로 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 밖으로, 낮은 곳으로 나가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청년들과 이웃들을 만나는 목회자, 세상에 도움이 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자녀 양육, 도와주세요! - 자녀의 올바른 성 정체성 교육

“부모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라!”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이사장)

대부분 아버지의 꿈은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생을 마치고 떠날 때 “저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마 웃으면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이뤘다고 해도 자녀들에게 “저는 아버지가 싫어요.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은 분이였을지 모르지만 제게는 아무

며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된다.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들은 ‘남자는 저렇게 여자를 감싸고 보호해주는 존재구나’라고 생각한다. 딸은 여성으로서 행복을 느끼며 자란다.

아빠는 아이들의 영웅이다. 그래서 아들은 “나도 커서 아빠처럼 될 거야”라고 말하고, 딸은 “나는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라고 말한다.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 모습은 아이들이 올바른 성 정체성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아이는 아빠와 엄마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행복하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소속감과 가치감, 자신감을 갖는다. 안정감과 소속감, 가치감과 자신감은 아이가 건강한 인격과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아이들에게 건전한 성교육을 시키고 싶다면 아내와 포옹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아내에게 잘못했을 때는 사과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항상 아내를 칭찬하고 격려해야 한다.

아이들 앞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은 아내를 욕하고, 깎아내리고, 때리고, 업신여기는 것이다. 어쩌다 아이들 앞에서 싸울 수는 있다. 그러나 반드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가정은 모판(苗床)이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건강하게 자라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

“가정은 모판(苗床)이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건강하게 자라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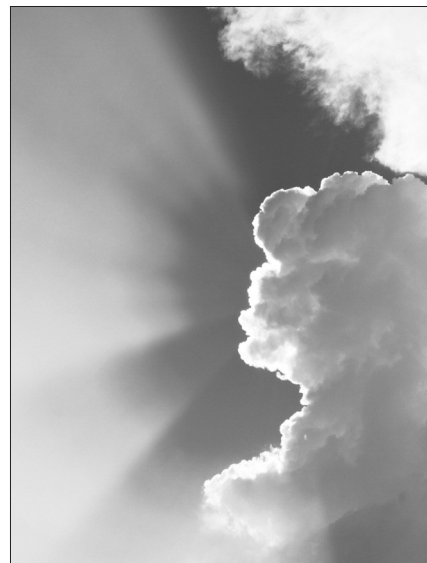
런 의미가 없는 분이예요”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아버지가 되는 길이 있다. 먼저 남자로 태어나야 한다.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다움을 갖춰야 한다. 그런 뒤에 결혼해서 남편이 되고, 자녀를 낳아 아버지가 된다.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려면 먼저 존경받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아이들은 어릴 때 엄마와 자신을 하나로 생각한다.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빠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느낌을 받는다. 반대로 아빠가 엄마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아빠가 자기를 학대한다고 생각한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무시하면 아들도 여자를 무시할 수 있다. 어머니가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 자란 딸은 분노를 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반항적이고 거칠어지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2월 14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대신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가르쳐 주셨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2장 27~31절 말씀을 읽고 답을 찾아보아요.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창조과학 다큐멘터리 영화 추천

‘창세기는 역사인가?(Is Genesis History?)’

창조의 비밀이 풀린다!



이 물에 잠겼을까요? 너무나 궁금한 신기한 이야기들의 답을 들려주는 영화가 있어요. 텔 태킷 박사님과 여러 박사가 함께 만든 ‘창세기는 역사인가?(Is Genesis History?)’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다큐멘터리 ‘창세기는 역사인가?’에서는 텔 태킷 박사님이 지질학(지구와 주위 행성을 연구하는 학문), 천문학(우주와 그 안에 있는 여러 천체를 연구하는 학문), 생물학(생물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 화학(화석을 통해 고생물을 연구하는 학문), 성서학(성서와 관련된 문헌을 연구하는 학문) 등 다양한 분야 박사님들과 함께 창조의 비밀을 풀어가요. 그랜드 캐니언, 와이오밍의 공룡 발굴지, 박물관, 심지어

친구들,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공룡은 진짜 있었을까요? 노아의 홍수 때 정말 온 세상

바닷속까지 들어가서 창조의 비밀을 알아낸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공룡이 정말 살고 있었는지, 온 세상이 잠기는 홍수가 정말 일어났는지 등 늘 궁금했던 창세기 속 이야기들의 답을 하나씩 찾아갈 수 있습니다.

친구들,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지 않나요? 진화론에서는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죠? 오랜 시간에 걸쳐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됐다고 배우지 않나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창조하셨다고 배웠는데 말이예요. 그 비밀도 다큐멘터리 ‘창세기는 역사인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조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창조의 비밀이 궁금한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꼭 다큐멘터리 ‘창세기는 역사인가?’를 보면 좋겠어요. 다큐멘터리 ‘창세기는 역사인가?’는 총 4개의 영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루에 한 편 또는 일주일에 한 편씩 부모님과 함께 영화를 시청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을 글이나 그림 등 작품으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만든 작품을 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면 추첨을 통해 어린이신문 ‘우리들작품’ 코너에 게재하고,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다큐멘터리 ‘창세기는 역사인가?’는 기록 OTT 풍당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글: 그림 명난희

15. 탐심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헌혈!

강병희 성도와 공진 자매의 헌혈 그리고 기도



양재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헌혈 버스에서 헌혈하고 있다.

“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헌혈에 참여해주세요!”

지난 2월 9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국민에게 헌혈 참여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추운 날씨와 연휴로 헌혈 참여가 위축되면서 혈액 보유량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까지 거세지면서 혈액 수급이 더욱 어렵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조금 더 지속해서 혈액 보유 일수가 3일 미만이면 수혈이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혈액이 턱없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 바로 헌혈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2022년 2월 18일 기준 혈액관리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혈액보유량은 1만5,899유닛(Unit)으로 3.2일분이다. 적정 혈액보유량 2만6,000유닛(5일분)보다 10,101유닛 부족하다. 부족한 혈액량을 채우고,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10,101명이 헌혈을 해야 한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이하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에 많은 성도와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2월 18일 기준) 성도 1,701명이 헌혈을 시도했고, 1,245명이 완료했다.

온누리교회는 2월 27일까지 생명나눔의 날 행사를 이어가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생명나눔의 기적에는 온누리교회 성도 236명이, 지난 2월 5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생명나눔의 날’ 행사에는 332명이 참여했다(2월 5~6일 185명, 12~13일 147명). 오는 2월 27일 생명나눔의 날 행사에서는 수

원, 부천, 인천온누리교회 주차장에 헌혈 버스가 방문한다.

지난 2월 13일 양재온누리교회 주차장에 헌혈 버스가 왔다. 그곳에서 “헌혈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방법”이라고 고백하는 강병희 성도(서대문공동체)와 공진 자매(여호수아청년부)를 만났다.

강병희 성도는 이날 95번째 헌혈을 했다. 헌혈 버스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했다. 강병희 성도에게 헌혈은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첫 헌혈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헌혈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헌혈 버스를 보니까 그날 생각이 나더군요(웃음). 마침 헌혈할 수 있는 날사이기도 해서 고민하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헌혈을 하려고 합니다. 헌혈은 제 삶의 일부이거든요.”

강병희 성도가 헌혈을 꾸준히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헌혈하면 좋은 게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생 때 교양 과목에서 헌혈에 관한 찬반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찬성하는 쪽에서 자료를 조사했는데 헌혈의 유익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우선 건강을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 헌혈증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좋은 헌혈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강병희 성도는 “헌혈이야말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저는 크리스천들은 하늘나라에 속한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의 일을 하고, 천국을 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본이 되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가 헌혈입니다. 지금처럼 혈액이 부족한 시기에 성도들이 나서서 헌혈하고 생명을 나눈다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헌혈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는 좋은 기회이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방법입니다. 꼭 동참해주세요.”

공진 자매도 같은 고백을 했다. 공진 자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용기 내서 생애 첫 헌혈을 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때마침 교회로 헌혈 버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참여했습니다. 용기 내서 첫 헌혈을 신청했습니다.”

공진 자매가 헌혈에 참여하면서 예수님 전하는 기회가 마련되기도 했다.

“친구들에게 헌혈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왜 갑자기 헌혈을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생명나눔의 날 행사를 설명하면서 교회 이야기를 꺼냈는데 친구들이 ‘귀하고 좋은 일’이라며 칭찬하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무척 기쁩니다.”

공진 자매는 앞으로도 헌혈을 꾸준히 하기로 했다. 더 많은 성도가 함께 참여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저 역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았기에 제 피를 이웃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헌혈 수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당장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피가 모자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명나눔의 기적을 먼저 체험한 성도들이 헌혈로 이웃들에게 생명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실천이 이웃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생명나눔의 기적 한 줄 소감

· 주님의 보혈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헌혈로 전달함이 기쁘고 감동스럽습니다.
/ 주성대 성도

· 아들이 작년도 헌혈의 집을 갔는데 약을 먹어 못했는데 오늘 씩씩하게 했답니다.
/ 차성준 성도

· 정기적 헌혈을 하게 되었네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생명나눔이 일상이 되길 기도합니다.
/ 양계성 성도

· 헌혈하러 왔는데 철분 수치가 정상이지 않지만, 혈장은 가능한 수치라 혈장만 헌혈하고 있어요. 일 년 전 철분 수치가 너무 낮게 나와 참여하지 못했는데 일 년 동안 건강을 회복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명나눔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김양희 성도

· 지금 이 나이에도 헌혈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조그만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음도 기쁩습니다.
/ 김준영 성도

· 함께함이 이 큰 기쁨이 됩니다!
/ 정효석 성도

· 작은 실천들이 모여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 김유라 성도

· 19년 이후로 헌혈을 오랜만에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 송유라 성도

· 10년 만에 의미 있는 헌혈을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2022년 첫 출발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

/ 장은정 성도

·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하니 온누리 패밀리 안에서 소속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함께하겠습니다.

/ 차혜민 성도

· 피로회복 프로젝트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 진서진 성도

· 작년에 이어 헌혈에 다시 한번 참여했습니다. 계속 마음만 있고 실천을 못 하다가 교회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게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 권은비 성도

· 동참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 온누리 복지재단

· 헌혈을 오랜만에 했는데 귀한 곳에 쓰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 양보람 성도

· 헌혈은 사랑이라서 헌혈했어요.

/ 여민우 성도

·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아암 어린이 돕기 참여하게 되어 더욱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었습니다.

/ 김정진 성도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1. 창조질서 회복이 답이다! 2. 온누리교회의 노력 3.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불편한 행복이 창조질서 회복시킨다!

3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온누리교회가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을 실시한다. 3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깊이 묵상하고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하면서 개인과 공동체의 창조질서를 회복해 나간다.

본지에서는 무너지고 있는 창조질서(생명과 환경)를 왜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시켜야 하는지,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그 두 번째 순서에서는 온누리교회가 그동안 창조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를 알아봤다.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구원하듯이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창조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누리교회는 2014년 사회선교본부 출범하면서 사회 전반에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오고 있다. 사실 “교회가 언제부터 이런 일에 신경을 썼다고 그래?”라는 반응을 사회선교부 소속 사역팀들이 심심치 않게 듣는다. 교회 안에서도 말이다. 이러한 반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직 사회 전반에서 복음의 능력과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사역을 연결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낯설어서 주저하고 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그래도 조금씩 변화의 물결이 나타나고 있다. 창조질서를 회복하려는 온누리교회의 노력에 동참과 호응을 보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랑하면 불편함도 행복하다”

“사랑하면 불편함도 행복하다.”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온누리교회의 큰 방향이다. 창조질서는 내가 편하고, 나만 생각할 때 무너지기 시작하고, 내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수록 회복되기 때문이다. 내 안에서부터 창조질서가 회복되면 그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이 곧 행복이 된다.

온누리교회는 2014년 사회선교본부 출범하면서 ‘Loving U’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Uncomfortable(불편함)’, ‘Unfamiliar(익숙하지 않은)’, ‘Unsafe(위험한)’라는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행복한 불편함’, ‘파스한 시선’, ‘손해 보는 사랑’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온누리교회가 실천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노력은 ‘대중교통 이용해서 교회 오는 주일’이다.

온누리교회는 2014년부터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하고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매주 주일 교회 주변 도로에 차량정체로 인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배려하고,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며, 탄소배출을 줄여 환경운동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삼조 캠페인이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감수할 것은 대중교통을 타고 교회에 오는 불편함이었다. 조심스럽게 시작한 온누리교회의 ‘대중교통 이용의 날’ 캠페인이 교회 주변 이웃은 물론이고 택시, 버스 운전기사 등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온누리교회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날’ (위), 자원순환 체험(아래) 등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쓰레기 줄이고, 물건 나누기

온누리교회의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실천은 교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품 줄이고, 분리수거장(그린스테이션)을 도입한 것이다. 사회선교부 생명과 환경팀에서 주력한 사역 중 하나다.

서빙고온누리교회를 기준으로 일반폐기물 배출량이 2017년 170.03톤에서 2019년 118.37톤으로 감소했다.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에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주차사역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 컵을 사용하고 있다.

버리지 않고 나누는 것도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서빙고온누리교회에 매주 주일 입지 않는 옷, 사용하지 않는 살림살이 등을 나누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나눔장터’가 선다. 나눔장터에서는 성도들이 후원한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나누면 매년 많게는 1천만 원에서 적게는 수백만 원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온누리교회는 2011년부터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의 선한 일터 ‘굿윌스토어’ 기증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지난해에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약 8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

온누리교회는 이외에도 텀블러 사용 캠페인, 탄소금식 캠페인 등을 이어가고 있다.

생명과 다음세대를 지키기 위한 노력

전 지구적으로 창조질서가 가장 많이 무너지고 있는 영역이 무엇일까? 가장 시급하게 창조질서를 회복해야 할 분야는 어디일까? 단연코 ‘생명’이다.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면서 생명을 낳고,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

고 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간과해서 안 되고, 시간을 지체해서도 안 된다.

온누리교회는 가정사역을 시작으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초기에는 가정사역, 미혼모 지원, 보육원 사역 등이 주를 이뤘는데 최근에는 그 사역의 폭과 지경이 대폭 넓어지고 있다. 2015년에는 ‘저출산대책포럼’을 발족해서 저출생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2019년 낙태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직후부터는 더 열심히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생명을 살리고, 다음세대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낙태법 개정 반대 운동’과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등을 실시하며 나부터 시작하는 생명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 혈액수급이 어려워지자 교계와 힘을 합쳐 대한민국 피(血)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을 4월 17일까지(부활절) 이어간다. 2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온누리교회 주차장에 헌혈버스가 방문해서 생명나눔의 날 행사도 한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창조질서가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 너무 많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부패하지 않게 하고, 빛을 밝혀야 할 곳이 그만큼 많다.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은 3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이어진다. 기도와 작은 실천을 시작으로 내 안에서부터 회복한 창조질서를 확장해 나가는 운동이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 동참하는 성도들은 7가지 주제(빛, 공기, 물, 땅, 계절, 생명, 인간) 중에서 실천 가능한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전기 소등하기’, ‘걸거나 자전거 타기’, ‘설거지통 사용하기’, ‘봄꽃 감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등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쉬운 일들이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도 있다. 이메일에 접속해서 쌓여있는 메일들을 삭제하기다. 쌓인 이메일 1GB만 지워도 탄소 149kg을 아낄 수 있다.

라떼는 말이야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스리는 영역

청년의 시기는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결정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 경제생활과 자아실현을 위해 직업을 정하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결혼 상대를 정한다. 특히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개인 노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을 ‘우연’이라고 하고, ‘운명’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스리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로 어떤 상대를 만나는지는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우자로 아무나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뜻과 계획에 따라 개입하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과정을 기록한 창세기를 보자.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아내로 만드신 것과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주신 것 등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확인할 수 있다. 구약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소상히 주관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도 주관하신다. 이는 그

리스도인들의 결혼에 대해 하나님의 구체적 인 계획이 있다는 말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결혼 상대가 누구인지도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나이가 찼는데도 결혼 상대를 만나지 못한 청년들은 초조해하고 평강을 잃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필이 있다는 신뢰를 가지면 평안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면 그리

(QT) 시간 등이다. 이 영역 훈련(discipline)은 결혼을 앞둔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이끄는 도구다.

둘째,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영위하며 하나님의 친밀하고 구체적인 인도를 받기 어렵다. 자신이 성결할 때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붙잡을 수 있는 영적 안테나를 높일 수 있다. 이럴 때 각자의 편견이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기쁘게 따를

동안 각자의 삶을 살던 두 개의 인격체가 만나 갑자기 함께 사는 결혼생활은 연애 시절 가졌던 인간적인 사랑이나 호감만으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 선천적인 성격, 과거의 경험이 서로 다른 부부가 서로 인내하며 화합하는 부부생활을 통해 인격적,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부부가 서로 인내하고 화합하는 것은 각자의 의지만으로는 되기 어렵다.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생활은 힘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결혼생활 속에서 세상에는 없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 배우자에게 느끼는 정신적, 육체적, 영적 사랑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부부들이 누릴 수 있는 신비로운 사랑의 경험이다.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특권이다. 온누리교회 모든 청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필을 만나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연합의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하고 축복한다.



차두희 멘토
(J4U청년부 멘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필을 만나 성령이 주시는 사랑을 주고 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연합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란다.”

스도인은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감을 만나기에 앞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크리스천 청년들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

첫째, 정기적인 교제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은 하나님과 홀로 대화하는 시간이다. 기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경읽기 시간, 말씀의 의미와 실천 방법을 깨닫는 말씀 묵상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자신의 결혼 상대를 정하셨고, 정한 바에 따라 평생의 인연을 맺었다는 확신이 결혼생활 중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의 풍랑을 견뎌낼 힘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삶의 풍랑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부부가 아름답게 연합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 속에서 부부가 성장하게 된다.

결혼해야 어른이 된다는 말이 있다. 몇십 년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원망과 시비 없는 가정 재정

결혼은 낭만적인 기대만이 가득 찬 생활이 아니다. “결혼은 삶”이라고 말한다. 삶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사랑과 낭만도 물론 포함되어 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신앙을 중심으로 사랑, 낭만, 행복과 함께 반드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 ‘가정 경제’, ‘가정 재정’이다. 재정은 부부의 결혼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소홀히 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 재정적인 필요를 어떻게 채우고,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부부 대화의 중요한 주제다.

신혼기 부부는 가정 재정에 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주제는 경제권을 누가 갖느냐는 것이다. 최근에는 가정 경제권을 갖는 형태가 예전보다 다양해졌다. 가정 경제권을 아내가 가지기도 하고, 남편이 가지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부부가 각자 경제권을 일정 부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서로의 수입은 각자 관리하고, 합의된 선에서 공동으로 가정의 살림을 운영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형태가 최선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부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선호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정의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가정 경제의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각자 받은 달란트(고전 12:4-12)대로 원망 없이(벧 2:14) 역할 수행을 하는 것이다. 정말 많은 부분에서 부부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가정 경제권을 맡는 역할은 더욱 신중하고 많은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가정 경제의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 당연히 ‘누구에게 더 달란트가 있는가’라는 접근이 먼저 되어야 한다. 재정 전문가 수준으로 감당할 수는 없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은 재정을 잘 감당하는 달란트가 있다. 부족한 부분은 서로 보완해 가면 된다. 남편이나 아내, 혹은 서로 함께 관리하는 형태 등을 고려해서 달란트가 더 있는 배우자가 맡고,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함께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정 경제권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결정되었다면 가정 재정의 집행과 관리 측면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재정적인 문제가 불거져서 심각하게 다투고 갈등을 겪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재정 사용에 있어서 불만이 쌓여 있다가 터지는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재정이지만 배우자에게는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 지출도 발생하기도 한다. 만일 독단적인 재정 사용과 집행을 하게 된다면 부부 사이에 원망과 시비가 쌓일

것이다. 독단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자 하는 유형을 ‘독단-통제형’이라고 한다. 당연히 피해야 할 유형이다.

재정은 권력, 힘과 연결되어 있다. 크리스천은 재정에 대해 ‘청지기’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재정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간혹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은 행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재정 사용에 있어서 억압하고,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행태가 나타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가정 경제권을 가진 배우자가 의도하지 않게 힘을 가진 통제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단-통제형’에게 나타나는 조정과 통제는 배우자나 자녀의 재정 사용에 지나친 간섭 형태로 나타난다. 경제권을 가진 배우자는 ‘독단-통제형’이 아니라 ‘청지기’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원망과 시비 없이 재정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정 경제권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독단-통제형’과 더불어 경계해야 할 유형이 ‘푸념형’이다. 특히 재정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과 불편함을 수시로 토로하고 자신도 모르게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이 많지 않을 것이다. 늘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정말 다양한 가정만의 재정 스토리가 있다. 가정의 재정 스토리

가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경우를 종종 본다. 부부가 재정적인 압박을 느낀다면 자신도 모르게 부족함을 불평하는 표현이 자주 나타날 수 있다. 재정 상황의 빠듯함으로 인해서 늘 푸념하면서 배우자를 압박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가정의 재정은 결혼생활의 안정과 부부의 결혼 만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결혼 초기에는 가정의 경제권을 누가 갖느냐는 문제로 갈등할 수 있다. 당연히 재정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달란트가 있는 배우자가 경제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우자는 그 달란트가 더욱 성장하도록 신뢰와 지지와 격려, 감사를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가정의 재정을 원망과 시비 없이 사용하는 것이 부부의 신뢰와 행복을 높일 것이다.

나눔: 가정 경제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우리 부부에게 맞는 가정 경제권의 형태를 찾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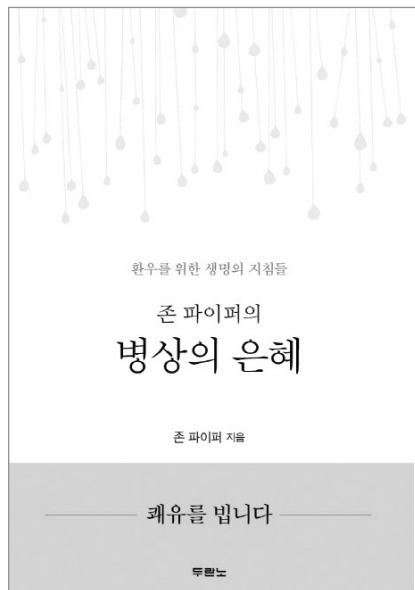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고통의 병상을 은혜로 바꾸는 10가지 진리



〈존 파이퍼의 병상의 은혜〉
존 파이퍼 저 | 두란노 | 7,000원

온누리교회 목회사관학교에 입소하기 전인 지난 토요일(12일) 오전에 받은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 결과를 보기 위해 용산역 앞을 지나고 있었다. 용산역 앞 선별진료소 입구부터 수백 명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길게 줄지어 서 있었다. 우리 모두 안전과 건강을 소망한다.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삶을 어렵게 한다. 질병이라는 불안정한 이름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한

다. 이러한 현실에서 〈존 파이퍼의 병상의 은혜: 환우를 위한 생명의 지침들〉을 다시 펼쳤다.

“주의 뜻이면 우리는 삽니다. 그러니 우리는 걸보기만큼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있어요. 그분의 뜻이면 우리는 삽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이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적(敵)이나 질병도 우리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손안에 붙들려 있는 것보다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존 파이퍼가 글의 시작에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써놓았다. 저자는 이 믿음을 근거로 ‘고통의 병상을 은혜로 바꾸는 10가지 진리’를 알려준다.

첫째, 주변 사람에게 들려오는 어설픈 조언 등 여러 가지 소리에 마음이 어수선했을 때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어야 한다.

둘째, 질병이라는 고통의 한복판에 내버려두시는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생겨날 때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며 빛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

셋째, 우리는 자신의 몸을 잘 알지 못하고, 서로의 아픔도 잘 알지 못한다. 자신이 체험하는 아픔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절망하

게 될 때는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족함으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확신하며 선포해야 한다.

넷째, 하나님도 질병을 고칠 수 없을 거라는 암담한 절망이 지배하게 될 때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해야 한다.

다섯째,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기에 질병이라는 형벌을 내리셨는지 서글퍼질 때는 질병의 추악한 기원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이고, 나 또한 죄인임을 기억하며 “죄는 추악하다”고 고백해야 한다.

여섯째, 위중한 질병의 상황에서 이대로 인생이 끝날까 봐 두렵고 허망해질 때는 살든지 죽든지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과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해야 한다.

일곱째, 완쾌되고 싶지만 그럴 수 있을지 의심이 될 때는 죄가 있기 전에는 병도 없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의 죄와 불의와 고난을 완전히 없애는 것임을 믿어야 한다.

여덟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싶지만 자꾸 마음에 시험이 들어 의심하게 될 때는 미혹의 주체가 사탄이며,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줄에 매여 실행에 제한이 있고, 결국 퇴출당할 것을 확신해야 한다.

아홉째, 나를 질병으로부터 낮게 해 달라는 것이 믿음이 부족하고 미성숙한 기도 같아서 망설여질 때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완전한 치유뿐만 아니라 지금도 의학적 방법이나 기적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치료하고 계심을 믿고 부끄러움 없이 간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한다.

열 번째, 의학적으로 제시된 질병의 원인을 듣고 자신을 책망하고 후회하게 될 때는 우리가 우연한 불운 따위의 피해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롬 8:28)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한다.

나는 질병의 두려움으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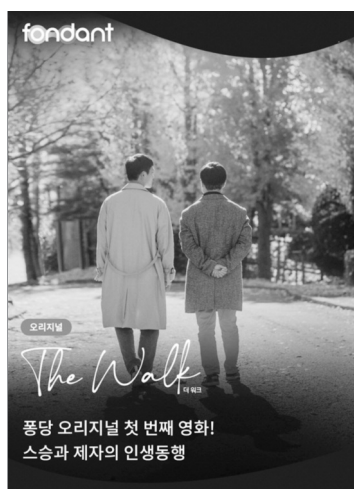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스러운 질병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집중하던 삶에서 믿음으로 돌이켜 남은 인생 동안에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와 선하시고 사랑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 위로받고, 하늘을 향한 소망과 지지 않는 새 힘을 누리게 하소서.”



노치형 목사
(중종로공동체)

기독교 OTT ‘퐁당’의 영화 추천

예수님과 동행(同行)



〈더 워크: 걷기 좋은 날〉
김소윤 감독 | CGNTV 제작 |
2022년 2월 개봉

나 언제나 동행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영화 ‘더 워크: 걷기 좋은 날’에 담긴 석호와 하경의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준다. 늘 우리와 동행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OTT ‘퐁당’ 앱에서 시청할 수 있다.

‘엘 샤다이’, ‘임마누엘’ 등 유명 CCM 작곡가이자 세계적인 CCM 가수 ‘마이클 카드’를 이끌어준 멘토가 있었다. 늘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동행했던 ‘빌 그레인’ 교수다. CGNTV에서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추억을 영화 ‘더 워크: 걷기 좋은 날’에 담았다.

석호(빌 그레인 역)의 강의를 들던 하경(마이클 카드 역)이 교수실을 찾아간다. 질문을 핑계 삼아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잠시 시간을 내달라는 하경의 요구에 석호가 교수실을 나와 함께 교정을 걸었다. 그 걸음이 계속 이어졌다. 매주 교정을 함께 거닐며 웃고 울었다. 석호는 제자 하경이 전역하던 날, 여자친구를 소개하던 날, 첫 공연을 하던 날, 실패로 낙담하던 날 등에 함께 해주었다. 석호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도 하경을 불러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석호는 필요할 때마다 하경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려줬다. 믿음으로 살고 죽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줬다. 하경은 석호와 만남을 통해서 진짜 주님을 만났다. 기쁠 때나 슬플 때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나라에 야구를 알려준 선교사



필립 질레트 선교사

을 YMCA의 전신) 소속 청년들에게 야구를 지도했다. 황성기독교청년회들은 2년여 만에 시합을 벌일 정도로 야구에 큰 관심이 있었다. 선교사들과 시합을 벌여 이기기도 했다. 필립 질레트 선교사는 1910년 한일합병 이후 청년들을 모으고 의기를 살리고자 스포츠 선교에 더욱 힘썼다. 지방 원정을 다니면서 스포츠를 전파했다.

1912년 105인 사건으로 YMCA가 일제의 도마 위에 올랐고 총독부의 요청으로 필립 질레트 선교사가 한국을 떠났다. 중국에서 선교 활동과 독립운동을 돕다 1937년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듬해 심장마비로 소천했다.

야구는 인기 있는 스포츠다. 프로와 아마추어 구단이 여럿이고, 생활체육인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운동은 놀이와 무술이 주를 이루었다. 근대 스포츠가 조선에 전해지기 시작한 것은 1896년 영국 허치슨 목사가 영어학교 운동회를 개최하면서부터다. 그때부터 매년 각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다.

1901년 YMCA 창설을 위해 이 땅에 온 필립 질레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야구를 전파했다. 예일대 시절 풋볼과 야구 선수로 활약한 필립 질레트 선교사는 근대 스포츠 보급에 관심이 많았다. 1904년 인사동 태화관 앞에서 미군이 캐치볼을 하는데 시민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그 모습을 보고 스포츠를 선교 수단으로 삼고자 미국에 야구, 농구, 복싱, 스케이트 용품을 주문했다. 필립 질레트 선교사는 황성기독교청년회(서울 YMCA의 전신) 소속 청년들에게 야구를 지도했다. 황성기독교청년회들은 2년여 만에 시합을 벌일 정도로 야구에 큰 관심이 있었다. 선교사들과 시합을 벌여 이기기도 했다. 필립 질레트 선교사는 1910년 한일합병 이후 청년들을 모으고 의기를 살리고자 스포츠 선교에 더욱 힘썼다. 지방 원정을 다니면서 스포츠를 전파했다.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3월 15일 개강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Onnuri Online Community: 이하 온라인 커뮤니티)가 3월 15일 개강한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Zoom)으로 열린다.

이번 학기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한건수 대표(국민대 겸임교수), 김숙경 소장(결혼예비학교 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김성목 장로(아버지학교 이사장)의 강의로 진행되며, 여성민 목사(전도사역본부장), 이준인 목사(갈렙청년부)가 <생명의 삶> 묵상 말씀 나눔을 주제로

11주 동안 소그룹 모임을 인도한다. 온라인커뮤니티에 참가하고 싶은 성도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 학기 참여했던 성도들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커뮤니티는 여러 사정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20세 이상 성도들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 공동체이다. 개인 사정으로 교회나 공동체 소속할 수 없었던 성도, 공동체 활동에 무관심했거나 혼자 신앙 생활하는 성도, 공동체에

등록하지 않은 성도, 전도대상자, 구도자까지 포함한다. 온라인커뮤니티 담당 목회자와 리더들이 개인 신앙상담, 온라인 심방, 중보기도 등 신앙생활 전반을 돕는다.

여성민 목사(온라인커뮤니티 담당)는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성도들이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영적 성장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02-3215-3214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함께 기도하는 청년들

대학청년부 홀리스타, 화요성령집회

청년들이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신앙과 삶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대학청년부 ‘홀리스타’로 매일 새벽을 깨우고, ‘화요성령집회’에서 뜨겁게 기도한다.

대학청년부 홀리스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진행된다. 예배 예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대학청년부 2월 화요성령집회는 ‘믿음의 항해’를 주제로 이어지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로도 참여할 수 있다. 2월 22일 집회에서는 김승수 목사가 ‘미련한 삶으로의 초대’ (고전 1:18-25)를 주제로 설교한다.

두란노서점 서빙고점 할인 이벤트

헌혈 사진, 헌혈증 제시하면 10% 할인

두란노서점 서빙고점에서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가한 성도들이 구입한 제품의 가격 10%를 할인해준다(일부 품목 제외). 헌혈 인증 사진이나 헌혈증을 보여주면 된다.

두란노서점 서빙고점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성도들은 전화(02-796-2310)나 문자메시지(010-3229-2310), 온라인(www.duranno.com/store/onnuri)으로 주문해도 된다. 생명나눔의 기적 할인 이벤트는 4월 17일까지 이어진다.

문의: 02-796-2310

재정국 선임간사 모집

재정국에서 선임간사를 모집한다. 대상은 온누리교회 성도로 신실하고 은행 업무나 회계업무에 능통한 금융기관 유경험자(7년 이상)이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신앙간증문 포함)를 작성해서 이메일(shine8902@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3215-3219

포천하랑센터 교사 모집

포천하랑센터(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504 우주빌딩 2층)에서 한국어 교사를 모집한다.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으로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정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국어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봉사할 수 있다. 주 1회(주중 혹은 주일) 포천하랑센터에서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친다.

문의: 010-8937-4766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훈련생 모집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훈련생을 모집한다. 3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3월 24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는 하나님의 가정을 완성해가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행복의 실체와 그림자’, ‘남편책임, 아내책임’, ‘부부치유’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5274-9350

제8기 한국어선교학교 개강

3월 5일~5월 7일 온라인(Zoom)

제8기 한국어선교학교가 개강한다. 3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한국어선교학교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과정이다. 한국어 선교 필요성과 전략, 한국어 발음 교육론, 한국어 문법 교육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 교육의 실제 등을 주제로 노규석 목사, 이수정 강사, 기준성 강사, 김훈 강사, 김인규 강사 등이 강의한다. 교재는 한국어교원양성과정 교수법을 도입해서 만든 한국어선교학교 자체 교재를 활용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비등록교인도 신청할 수 있다. 아이스쿨 회원가입하고 등록하면 된다.

문의: 010-3290-4506

아름다운동행 참가자 모집

아름다운동행 자원자반과 코치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아름다운동행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회복과 재충전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부부가 성경적 가정원리를 따라 새로운 가정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름다운동행 자원자반은 3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3월 10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가정당 5만 원(교재비 포함).

아름다운동행 코치반은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토요일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이어진다. 수강신청은 3월 10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가정당 3만 원(교재비 포함).

문의: 010-9041-5538

기쁨의 샘 참가자 모집

주제별 회복학교 ‘기쁨의 샘’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7시 5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2월 24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교재비 별도).

기쁨의 샘은 심리치료의 유익, 한계, 문제점을 성경적으로 연구 보완해서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반복적 우울감, 중독, 정서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가족들이 참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의식(自意識)에서 주의식(主意識)으로’, ‘일반 기도에서 말씀 기도’, ‘인지적 반응에서 성경적 상황반응으로’, ‘일반 심리치료와 성경적 치유 검토’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5150-0556

두란노어머니학교 2월 온라인 P.P 기도회

두란노어머니학교 2월 온라인 P.P(Power Prayer) 기도회가 열린다. 2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두란노어머니학교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다. 가정

과 사역,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어머니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온라인 P.P 기도회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진행된다.

두란노어머니학교 119기 지원자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 119기 지원자를 모집한다. 3월 7일부터 4월 4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사모, 선교사, 목회자는

50% 할인).

두란노어머니학교는 행복한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에 덕을 세우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성으로 교육하는 과정이다.

문의: 02-2182-9110

■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이정혜 자매(여호수아공동체)

이제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지난해 5월, 천주교에서 개종하고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새가족순장님이 내게 일대일제자양육을 받아볼 것을 적극적으로 권면하셨다. 처음에는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지나갔는데 교회를 다닌 지 약 3개월이 되어갈 무렵 결단을 내렸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았고, 혼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줬으면 했다.

양육자가 매칭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너무 기쁜 마음에 양육자님보다 먼저 연락을 드렸다. 양육자님은 나이 차이가 많은 청년과 동반해본 적은 없으셨다며 당황스러운(?) 마음 반, 반가운 마음 반이셨던 것 같다. 나는 어머니꼴 되시는 분을 신앙 안에서 만나서 마냥 기뻐했다. 나의 친부모님은 아직 믿음이 없어서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데 어려운 면이 있는데 어머니와 동년배인 분과 신앙을 나눌 수 있어서 큰 위로가 되었다.

양육자님과 늘 즐겁고 기뻐했던 기억밖에 없다. 지금 돌이켜보면 무엇이 그토록 즐겁고 유쾌했었나 싶을 정도로 항상 웃음을 재충전하

는 시간이었다. 얼마나 기쁜 시간이었으면 양육자님의 남편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한 청년을 양육하기 시작하셨다.

매주 일대일제자양육 숙제를 하는 것은 내게는 즐거움이었다. 일대일 제자양육 중에 가장 양식이 되었던 내용은 ‘구원의 확신’이었다. 해당 진도를 나가던 당시에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가 낯설었다. 내게 확신이 있는지 가우뚱했던 기억이 난다. 일대일제자양육 교재에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하는지’, ‘영생과 구원을 받았는지’,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지’ 등에 대해 ‘예/아니오/모르겠음’으로 대답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나는 ‘예’와 ‘모르겠음’을 둘 다 표기했다. 이성적으로는 ‘예’이지만, 잘 모르겠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일대일제자양육 교재를 보면서 다시 표기해봤더니 모든 질문에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 이제는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의심 없이 고백할 수 있다. 내 이야기에 늘 귀 기울여주시고, 동행해주신 양육자님께 감사하다.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린다.

■ 아름다운동행 수료 간증



/ 공수철 성도(부천온누리교회)

“정말 아름다운 부부가 되고 싶다”

우리 부부는 대화와 소통이 그다지 없이 지내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아내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름다운동행을 신청했다. 상의도 없이 신청한 프로그램이라 망설였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의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하며 참여했다.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고 힘들 때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아름다운동행도 비슷하지 않을까 염려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이 변했다. 우리 부부의 모습뿐만 아니라 나를 점검하고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아름다운동행에 참가하면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서운하고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내가 자라온 환경과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아내의 관점에서 아내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머리로는 내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아내가 왜 변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컸다. 항상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많았고,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했다. 아름다운동행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다.

우리 부부는 대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비난과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더 악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름다운동행에서 배운 ‘I-메시지’가 도움이 많이 되었다. 계속 연습하고 노력해서 더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 사랑의 언어만 전하는 부부가 되고 싶다. 사실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 연단하며 배워야 할 것들이 정말 많다. 배우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부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부부가 되고 싶다.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은 여정을 멋지게 달려가고 싶다.

아름다운동행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느낄 수 있었다.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신청해준 아내에게 감사한다. 프로그램을 인도해 주신 팀장님과 강사님께도 감사하다. 사랑과 열정으로 섬겨주신 3조 박춘기, 윤미덕 코치님과 늘 칭찬과 격려로 힘이 되어 주신 형제자매님들께 감사하다.

■ 갈렙공동체 예배 처소 이전



/ 김사라 자매(갈렙청년부 대표MC)

주일 오후 4시
도곡교육관 3층

교회에서 이삿집을 몇 번이나 싸본 경험이 있는가? 갈렙청년부는 이삿집센터를 차려도 좋을 만큼 19년 동안 9번이나 이사했다.

갈렙은 85세에도 거친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며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믿음의 사람이다. 갈렙청년부는 갈렙의 믿음에 기초해서 안정적인 서빙고온누리교회 예배당에서 나왔다. 배화여대 강당을 시작으로 송동교회, 신사 나이트클럽, 신도림 극장, 도곡교육관 등지를 이동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하나님이 양재온누리교회로 안전하게 피신시켜 주셨다. 양재온누리교회에 초막 셋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지난해 12월 다시 도곡교육관으로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솔직히 울고 싶었다. 하나님께 야속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2시에서 4시로 예배 시간도 바뀌어야 했고, 장소도 기대했던 강당이 아니라 교육관 3층으로 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도곡교육관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하면 지체들이 많이 따라올까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말씀을 되새기고 기억했다. 새로 부임하신 이준인 목사님과 믿음으로 도곡교육관 3층 기쁨홀로 이사했다.

2022년 새해 첫날 열심히 이삿집을 날랐다. 새로운 예배 처소를 꾸미고, 음향과 조명 등을 다시 준비하며 기도했다. 그랬더니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다. 주님이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펼쳐가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 잡았다. 하나님은 그 기대를 기쁨으로 바꾸고 계신다.

갈렙청년부 지체들이 새 예배 처소에 많이 따라왔다. 매주 새로운 지체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3층 기쁨홀뿐만 아니라 2층 온유홀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기쁨홀을 이용했다. 도곡교육관에서도 기쁨홀에서 예배를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갈렙청년부를 향한 뜻이 ‘기쁨’임을 깨닫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그 기쁨 말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얻는 기쁨이 크다.

갈렙청년부는 많은 변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다. 하지만 하나님이 온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믿으며 기쁨으로 동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알고 싶은 청년들은 주일 오후 4시 도곡교육관 3층 기쁨홀로 오세요!

■ 대학부 연합 콘퍼런스 참가자 간증



/ 정명훈 형제(하늘대학부)

앞으로 나의 기도제목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회에서 열리는 수련회와 아웃리치가 닫힌 지 오래다. 모태신앙으로 긴 시간 교회를 다녔던 내가 당연하게 누렸던 은혜의 자리들이 닫혀버린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대학부 연합 콘퍼런스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큰 기대를 했다.

대학부 연합 콘퍼런스 첫날 믿음에 관한 설교를 들었다. 이상준 목사님께서 “산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정말 산이 옮겨졌을까?’라는 호기심으로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그다음 내용이 충격이었다. 산을 옮기기 위한 기도를 했으면 산을 옮기기 위해 지금 당장 삽을 들고 산으로 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곱씹어 볼수록 하나님이 더 깊은 의미를 보여주셨다. 산을 옮기기 위해서 삽을 들고 간다는 뜻은 산이 옮겨질 거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 것을 말했다.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했다. 이루어질 만한 것들만 기도하고 있

는 나를 발견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안에 믿음의 한계선이 있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선을 만드는 나를 보았다. 하나님이 대학부 연합 콘퍼런스 기간 내내 신기할 정도로 믿음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다. 진짜 믿음은 이루어질 법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임을 배웠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기도한다. 지독한 죄인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나의 기도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들이 곧 내가 원하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치열하게 기도하는 진짜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다. 매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기도하고 싶다.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계속 기도하고 싶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찌릿함을 잃지 않는 소금, 어둠에 잠식되지 않는 빛이 되고 싶다.

장로칼럼

작은 물결이 큰 파도를 만든다!

정운오 장로
(동작공동체)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정성껏 만든 목도리와 장갑을 선물 받았다. 이 목도리와 장갑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누가 가르쳐주거나 말하지 않아도 목도리와 장갑 정말 소중하게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인간에게 창조세계를 선물로 주셨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은 창조세계를 사랑해야 하고 돌보아야 한다. 이 지극히 단순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환경문제와 신앙을 연결하지 못했다. 환경문제와 신앙이 연결되면서 나의 신앙의 지경이 넓어진 것은 약 10여 년 전이다.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제3차 로잔대회가 열렸다. 그리고 제3차 로잔대회 <케이프타운 서약>이 공표됐다. <케이프타운 서약>에는 10가지 신앙고백이 담겨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등 신앙고백들이다. 앞의 내용은 모두 이해됐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한다’는 7번째 신앙고백에서 턱 막혔다. 생뿔뿔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7번째 신앙고백을 잘 읽어봤더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크리스천들이 사랑해야 한다는 고백이었다. 굉장한 충격이었고,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는 경험이었다.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돌보는 일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연과 환경을 남용, 착취, 오염시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은 크리스천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복음 실천이다.

창조세계는 왜 파괴되고 있을까? 인간의 탐욕과 탐심 때문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창조세계를 남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 급격한 기후변화라는 위기에 봉착했다. 수많은 사람이 전쟁과 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동물들이 처한 환경은 더욱 처참하다. 닭을 닭장 안에 집어넣고 많은 달걀을 얻으면서 닭이 생명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문제는 인간의 탐심이다. 지금 전 지구적으로 주목 받는 우주산업도 인간의 탐심이 쏘아 올린 산업이다. 우주산업의 주된 목표는 우주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과 땅을 찾는 것이다. 실컷 남용하고 지구가 망가지면 다른 행성으로 가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지구는 어떻게 될까? 탈지구가 시작된다면 모든 인류가 새로운 행성으로 이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사랑하면 복음이 전해져야 할 대상이 나, 가족, 공동체, 인류뿐만이 아니라 창조세계 그 자체라는 창조질서를 목상하게 된다. 창조세계가 인간의 탐욕으로 망가지지 않게 해야 한다. 창조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전 지구적인 흐름에 비하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천이 지극히 작다. 나는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가정에서 자원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채소나 꽃을 길러 지인들에게 선물하기도 한다.

온누리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사랑하고 실천하면 좋겠다. 전 지구적인 문제에 작은 실천이 도움이 되겠냐는 회의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다. 그래도 작은 물결이 큰 파도를 만든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사랑하고 지키는 걸음을 시작하기를 축복한다.

권사칼럼

인생 후반전에 새로 꾸는 꿈

양차심 권사
(신원산공동체)

나는 요즘 제주도에서 머무르고 있다. 인생의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먹고, 걷고, 말쑥을 목상하고, 성경을 쓰면서 지내고 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 후반전의 삶을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매일 묻고 있다. 하루에만 몇만 보씩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느낌으로 걸으면서 주님과 나만의 온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토록 달콤한 시간이 또 있었을까 싶을 만큼 행복하다.

인생 전반전의 삶을 치열하게 넘어지고 실수하며 열심히 살았다. 후반전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었다. 형부가 목회하는 교회에 가게 되었고, 농촌 복음의 현실을 보게 되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노후는 농촌에 살면서 자연과 함께 그분들과 삶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게 되었다. 매일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

코로나19가 내 꿈의 실현을 앞당겼다. 코로나19로 내 삶의 모든 것이 멈췄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의 신을 벗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충남 대천으로 내려가 ‘마르페 힐링팜’이라는 이름의 작은 치유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유기농으로 자급자족하며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 밥상을 차려드린다. 농촌에 계신 분들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밥을 대접하는 일이나 사역이다. 주님이 많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다.

대천으로 내려온 이후 욕심을 버렸다. 자급

자족으로 생활비를 해결하고, 주거비는 서울보다 적게 든다. 나라에서 해주는 지원도 많다. 그래서인지 욕심은 없어지고 감사가 늘어난다. 늘어나는 감사 속에서 또 다른 작은 꿈을 꾸다. 은퇴한 크리스천들이 농촌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다. 인생의 후반전, 생의 남은 날들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산다면 보람되고 행복하지 않을까?

은퇴하신 선교사님들께도 농촌 생활을 권하고 싶다. 생활비가 거의 안 드는 농촌에 정착해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 복음화율이 현저히 낮은 농촌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오신다면 우리 민족을 살리는 또 다른 귀한 기회가 될 듯싶다. 그래서 은퇴한, 은퇴를 앞둔 많은 성도와 선교사들께 감히 도전을 드린다.

우리나라 농촌에는 복음이 절실히 필요하다. 교회는 몇십 년씩 다녔는데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신앙생활이 오직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전부인 성도들이 적지 않다. 장로님이 동네 사람들과 싸우고, 집사님이 평판이 좋지 않아서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다. 농촌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성도들의 성숙한 믿음을 보여줄 이들이 필요하다. 복음을 나누고 전해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실하다.

나의 남은 삶은 하늘나라에 저금하고 싶다.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떠날 마음의 보따리를 준비하고 부르실 때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곳에서 따로, 또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사역을 함께 하고 싶다.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같이 기도하고, 사역하고, 나누고 베푸는 천국의 삶을 살고 싶다.

신앙에세이

김은혜 전도사
(양재 차세대)

어린 시절 성가대실이나 권사실, 식당 등 교회의 모든 장소를 제집 드나들듯 누비고 다녔다. 그러면 교회에서 마주치는 어른들이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곤 했다. 인사를 드리면 어른들은 나를 그냥 보내시는 법이 없었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 천 원짜리 지폐 하나를 주시며 간식 사 먹으라는 집사님이 계셨고, 가방을 뒤져 기침 방지용으로 가지고 있던 박하사탕 한 알을 쥐여 주시는 권사님도 계셨다. 작은 아이 한 명을 향한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 온 교회에 가득했다. 그 소소하지만 파스한 손길들은 시간이 훌쩍 흐른 지금까지도 내 안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따뜻한 추억이 나를 사랑받는 존재이자 사랑이 가득한 아이로 자라게 했다. 내 신앙의 귀한 뿌리가 되었다.

매주 주일 마주하는 차세대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일주일에 한 번, 단 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세대들은 교회에서 어떤 추억을 만들고 있을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 편히 뛰어다니는 것을 허락하기도 어렵다. 내가 어린 시절 느꼈던 교회의 파스함과 신앙의 추억을 차세대들에게 만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럼에도 차세대들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

차세대의 모든 예배당 예배가 멈춘 작년 초 꿈이자라는땅(소년부)에서는 매월 친구들을 위한 간식 이벤트를 진행했다. 교사 회의 시간에 선생님 한 분이 화상 소그룹에서 있었던 일

을 이야기해 주셨다.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이벤트에 참여하면 맛있는 간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더니 한 학생이 진지한 표정으로 “선생님, 교회가 자꾸만 선물을 퍼주다 가난해지면 어떡해요?”라고 질문했다고 한다. 교회를 걱정하는 그 학생의 순수한 마음에 웃음이 나고 말았다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역시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지난 1월 말 스포츠로 선교하는 FCA코리아와 함께 차세대들을 데리고 스키 캠프를 다녀왔다. 아이들이 숙소 바로 옆 건물에 있는 편의점에 가고 싶어 했다. 외부 사람들과 불필요한 접촉으로 인해 혹여나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편의점에 가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끈질기게 조를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이들은 즉시 수긍하고 그 이후 단 한 번도 편의점에 가자고 말하지 않았다. 마지막 날 저녁 아이들에게 왜 더 조르지 않았냐고 물었다.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캠프에 왔잖아요. 혹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돌아가면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를 욕할 텐데 그건 생각도 하기 싫어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회와 물리적 거리가 멀어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웠다. 그 비결은 바로 가정에 있다. 교회를 사랑하는 가정, 교회를 걱정하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거울처럼 그대로 비추고 있다.

사역이 마무리될 때마다 많은 가정에서 감사 메시지를 보낸다.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참여하면서 겪은 크고 작은 에피소드를 나눠주면 준비과정의 수고가 온데간데없이 잊히고, 더 좋은 것을 나누고자 더욱 기도하고 고민하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시기다.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교회와 가정이 함께 걸어가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한다.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는 차세대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우리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존재의 근원이며, 공급자며, 보호자며,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는 능력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단순히 잘못된 행실을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아버지와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17절).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유혹의 뿌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버리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고, 다른 이들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실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강하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유는 궁극적인 대상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믿을수록 유혹이 강하고 집요하게 옵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왜 유혹에 빠집니까?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쓰러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유혹을 받은 적이 없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닮았든지, 세상과 하나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진짜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유혹에 부딪힙니다. 자녀들을 무너뜨림으로 아버지를 공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자녀들을 아버지로부터 끌어내고, 아버지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불순종의 자녀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이미 사탄의

편이 된 불순종 자녀들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사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이들만 협조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절대로 사탄이 자기편으로 끌어들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빛의 근원이십니다. 빛의 창조자이시고, 완전한 빛입니다. 태양도 발광체입니다. 태양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온전한 빛이 아닙니다. 빛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통로일 뿐입니다. 태양 빛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 빛을 통해 식물이 자라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빛을 많이 쬔수록 건강해지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빛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도 빛이 우리에게 주는 공급이 얼마나 큼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 밝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그분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빛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빛의 아버지가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18절).

이 땅 가운데 빛을 통해서 수많은 좋은 것들을 공급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재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를 통해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연 만물은 우리를 따라 새 창조의 영역에 구속받는데, 인간이 먼저 구속받고 만물이 구속됩니다. 첫 번째 창조에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새 창조에서는 인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만물을 구속하는 방법으로 재창조하십니다. 유혹에 빠지는 이들과 대조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죄와 사망을 낳지만, 우리 아버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낳습니다. 사람은 욕심으로 죄와 사망을 낳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낳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따라 살 것인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유혹의 핵심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 빛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재창조를 이루시는 아버지와 의 관계를 끊으려는 것입니다. 미혹의 단계, 죄의 잉태 단계, 죄가 자라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혹의 목적입니다.

유혹에 넘어가 죄의 습성에 빠져 있는 영혼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신호가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삶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재창조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갈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갈망이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임재, 아버지의 도우심,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났고, 아버지는 그 갈망에 응답해서 온갖 좋은 선물과 완전한 은사, 새 생명을 낳는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빛들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을 바라지 않고 스스로 유혹 거리로 채우려고 할 때 삶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선물을 받고 체험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그것이 유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와 동행하고, 아버지와 가까운 자녀가 될 때 우리를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나라를 공격하려는 수많은 유혹에 속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교회의 사회적 책임



심길섭 장로
(사회선교부
다문화사역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세상의 환경과 상황은 변한다. 하나님의 선교도, 선교지도, 선교사의 유형과 내용도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언어와 문화의 경계선을 넘어 열방을 향해 해외로 나아갔다. 지금은 선교지가 국내로 옮겨오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난민, 결혼 이주 다문화 등 이주민 300만 명이 국내로 이주했다.

경기도 포천 송우리에 결혼다문화 예배공동체 ‘포천하랑센터’가 있다. 사회선교본부 다문화사역팀에서 섬기고 있다. 포천하랑센터에는 8개 국적의 15가정과 학생 26명이 있다. 9가정이 한부모가정(사별, 이혼)이고, 세 가정만 온전한 가정이다. 아이들은 중도입국자녀와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로 나누어져 있다. 이 아이들은 외모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열등감, 친

구 관계의 어려움(왕따, 학교 성적 부진), 가정 불화(이혼, 계부), 생활 궁핍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청소년들과 함께 성장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아이들은 낮은 자존감, 우울증, 분노장애, 정체성 문제, 경제적 열등감 등으로 자신의 가정과 한국 사회에 많은 불만을 품고 있다. 이 아이들을 유럽의 외로운 늑대처럼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교회에 맡기신 선교의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 예배드리자고 하면 모두 도망가버려서 봉사자들끼리 기도할 때도 있었다. 욕도 듣고, 아동폭력이라 허위신고도 당하곤 하였다. 이 모든 것이 사랑에 목마른 아이들의 관심 표현이었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이제는 예배는 물론이고 진학상담도 하고, 개인의 어려움도 나누고 있다. 무엇보다 부모들이 온전히 아이들을 포천하랑센터에 맡기고, 부모님들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관계가 되었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요셉청년부 형제들이 지난 5년 동안 포천하랑센터 예배를 섬기고 있다. 컴퓨터, 피아노, 기타 등을 지도해 준다.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의 헌신에 눈물이 맺힌다. 강촌공동체에서는 매주 주일 2개 순이 방문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사랑으로 다문화 아이들과 가정을 섬기고 있다. 부모들의 정서 불안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한 이혼과 아이들에 대한 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감, 경청, 수용, 상담, 한국어 토목교실, 연극, 음악, 미술을 통한 치유와 회복, 감정, 행동 코칭, 어울림합창단, 파워웨이브 뮤지컬단, 포천시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중도입국자한글교실, 버크만 검사, 요리교실) 등을 도입했다. 아이들과 다문화가정 부모들의 참여도가 높다. 가정이 바로 서고, 자녀들이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교회공동체와 전문사역자의 헌신, 지역행정기관의 협력과 섬김으로 사역이 힘들거나 외롭지 않다.

결혼 이주 다문화사역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자녀들을 섬기는 사역이다. 근로자 이주민사역인 온누리M미션과 구별된다. 이주민사역과 구별해서 결혼 이주 다문화사역을

사회선교본부에 또 다른 사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근로자 이주민사역을 하는 교회와 기관이 많다. 그러나 결혼 이주 다문화사역을 하는 교회와 기관은 그리 많지 않다. 그만큼 부르심을 받은 목회다. 재정 지출도 많다. 그렇기에 전문사역자 뿐만 아니라 헌신과 사랑으로 섬기는 봉사자가 필요하다.

결혼이주민 가정이 30만이다. 부르심을 받은 교회공동체에 맡기신 사명이다. 사회선교부 다문화사역팀은 결혼 이주 다문화사역을 위해 포천하랑센터와 12개 협력교회, 기관들과 연합하고, 온누리교회 캠퍼스와 소통하며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사회선교를 하고 있다. 한국 말을 못 한다고 남편에게 욕을 먹고 매 맞는 아내들, 자녀의 학교에서 보내준 통지문 내용을 몰라 찢찢매는 엄마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살아가야 한다. 결혼 이주 다문화사역은 외국인사역, 가정사역, 회복사역, 차세대사역 등이 복합되어 있다. 많은 성도가 이 뜻깊은 사역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illegible]

■ 세례
 허브대학부
 지선 990202
 입교
 가람 030129
 영주 011204



풍당 1주년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풍당을 응원해주세요!

#1 풍당 어워즈

다양하고 은혜로운 풍당 콘텐츠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콘텐츠를 선정해주세요!



언플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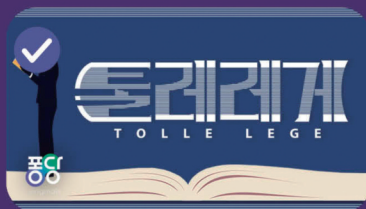
보라통독 성경언박싱



바이블맨



신은 죽지 않았다



톨레레게



예수동행일기

* 위 이미지는 투표하기 예시입니다.

기간 2022년 2월 15일(화) ~ 3월 11일(금)

발표 2022년 3월 18일(금)

투표하기 www.fondant.kr

* 스마트TV, PC 웹의 큰 화면에서도 '풍당'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세요



풍당 설치



이벤트 참가